

중앙북극공해 입법현황 분석

임지형*

*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Analysis of the Legislation on the Central Arctic Ocean

Lim, Jee Hyung*

* World Ocean Development Institution,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중앙북극해, 공해, 어업, 오슬로 선언, 중앙북극공해어업협정안

Key Words : the Central Arctic Ocean, the High Sea, Oslo Declaration, draft the Agreement to Pro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1. 서론

새로운 어장 형성의 가능성을 지닌 중앙북극해는 국제 공해 관리체제와 동일하게 국제협약 및 지역수산기구를 통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 및 지역수산기구들은 일부 북극해에만 적용될 뿐이다.

이에 북극 연안국들은 중앙북극해의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 속에 2015년 「중앙 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의 금지에 대한 선언(Declarat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High Seas Fishing in the Central Arctic Ocean:이하 오슬로 선언)」을 하였다. 이후 이를 규제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여, 2017년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협정안(draft the Agreement to Pro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이하 중앙북극공해어업협정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중앙북극해 공해어업관리에 대한 입법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오슬로선언

오슬로선언은 2015년 7월 16일 북극연안 5개국(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이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다.

북극연안 5개국은 중앙북극해는 1년 내내 얼음으로 덮혀 있는 결빙수역으로 어업이 불가능하나, 기후 변화로 인하여 결빙의 분포가 변하고 있으며 관련된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인정하였다.

오슬로 선언은 동 수역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상업적 어업이 행해짐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선언이 유엔 해양법협약과 유엔공해어업이행협정의 권리·의무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지식과 과학지식을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중략)

3. 중앙북극공해어업협정안

중앙북극공해어업협정안은 2017년 11월 제6차 회의에서 북극연안 5개국과 비북극권국가 4개국(한국,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및 국제실체(EU)에 의해 채택되었다.

중앙북극공해어업협정안은 전문과 총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의 변화를 인식하고, 사전예방적 접근을 적용하여 중앙북극공해의 비상업적 어업을 방지하고자 하며, 원주민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지식 사용을 촉진한다는 점에는 오슬로 협약과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여부에 관한 입장이다. ...(중략)

4. 결론

중앙북극공해어업협정안은 현재 미발효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극공해 전체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라는 점과 북극연안국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비연안국의 참여를 허용하고 연안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안이 발효 된 이후의 상황과 협정안 다음 단계인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First Author : jhlim@kmou.ac.kr, 051-410-5388

※본 논문은 미완성논문으로 향후 수정·보완하여 완성할 예정입니다.